

고민 깊어진 관광도시... 긍정·부정 사이 해법은 제각각



<6> 에필로그

오버투어리즘에 신음하는 도시들
너도나도 문제해결 위한 정책 추진
새로운 도전에 성장통 겪는 우도
정주권 보호 제도개선 추진 북촌
주민·관광객 상생방안 찾는 감천
관광지 차량통제 펼치는 바르셀로나

‘과잉 관광’으로 인해 전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침범하고 환경도 훼손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해 관광객 수는 정점을 찍었지만,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 지하수 고갈, 교통 혼잡, 상하수도·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제주가 관광객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지만, 제주가 정말로 과잉 관광에 빠졌는지에 대해 딱 부러진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지난 2018년 물리적 수용력을 따진 연구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지역 교통 인프라 수준에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한해 1686만명이라고 판단했다. 또 1990만명 이상 관광객을 받으면 제주가 손해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한계치는 2022년쯤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심리적 수용력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과잉 관광에 대처하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 환경기어부담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렌터카 총량제는 소송에 휘말려 제동이 걸렸고, 환경기어부담금은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

이번 기획은 제주의 우도, 서울 북촌한옥마을, 부산 감천마을,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의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이들 지역이 어떻게 과잉관광에 대처하고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 우도로 가는 도항선에 실린 10여대의 차량. 이 중 렌터카는 5대로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3 북촌한옥마을을 지킴이 '조용히 해주세요' 문구가 외국어 등으로 적힌 피켓을 들고 관광객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4 하루 30만명이 찾는 유럽 최대 재래시장인 보케리아 시장.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1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 입장이 금지된다.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정책 2년 성과=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의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외부'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우도 반입을 금지했다. 제주연구원이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우도 방문 차량은 하루 평균 287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렌터카 등에서 우도 순환버스 이용, 이륜·삼륜 자동차 대여 등으로 변했다.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렌터카는 탈 수 없었으나, 이륜·삼륜차 등을 이용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수준의 교통통제 정책을 바라는 주민들과 렌터카 반입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상권별로 매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상인 간에 새로운 갈등 구조도 발생하고 있어, 우도면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국내 유명관광지 북촌한옥마을·감천문화마을=국내 유명관광지인 서울의 북촌한옥마을과 부산 감천문화마을도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북촌한옥마을은 지난해에만 470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그러

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공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마을이 관광명소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은 지난해 6월 '북촌마을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8대 대책안'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은삼 종로구청 관광과 과장은 "분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마을 방문 시간 제한 및 주거지 이면도로 관광버스 진입 제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촌한옥마을이 행정 제도 개선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반면,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관광수익을 마을로 환원하는 정책으로 관광객과 주민 간 상생 방안을 찾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 모여 살던 산동네였던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이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가 됐다. 지난해에만 2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2017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꼭 가 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 중 하나로 꼽혔다.

감천문화마을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현안들을 손수 챙기고 있었다. 주민협의체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관광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주민협의체는 공방, 음식점 등 11개 마을 사업장을 직접 설립·운영하며 관광 수익도 직접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업장에 일할 사장과 종업원을 모두 지역주민들로 2년마다 공개 채용해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무료 마을 빨래방,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욕탕·채소가게 설립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전순선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장은 "행정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마을 문제를 모두 행정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구축한 관광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잘 가꿔나가면서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광대국 스페인도 오버투어리즘 해법 찾기 분주=스페인인 지난 2017년 기준 무려 8200만명의 해외 관광객이 찾은 관광대국이다. 스페인 내 여러 도시 중 관광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인 바르셀로나는 연간 3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의 관광대국인 스페인도 오버투

어리즘으로 인한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바르셀로나시 당국은 유명 관광지인 랍블라 거리, 성가족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 등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관광지에 관광버스 진입을 막는 차량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관광지에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유럽 최대 재래시장인 보케리아 시장 등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시간대에 단체 관광객 입장을 통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 숙박 성행 문제와 불안한 치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바르셀로나시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세를 걷고 있다.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환경보전기여금과 유사한 형태다.

하비에르 바르셀로나 시의회 의원은 "거둔 관광세는 환경 정화 등 관리 비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관광객 편의 증진과 유지 목적으로도 쓰인다"며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문제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산업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김현석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55주년

당신의 선택,

MEDI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증진의원 (제주)

건강검진 예약 문의 : 064)740-0200

국민의건강, MEDICHECK가 함께합니다!

Always Medi-check